

# 이재명측 “광주·전북 우세”...이낙연측 “전남서 우세”

민중 경선 호남지역 투표 시작  
20만표, 판세 가를 최대 분수령  
이들째 투표율은 기대보다 낮아  
“추석 민심, 누가 후보 되든  
똥똥 뭉쳐 정권재창출 요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호남지역 권리당원 경선 투표가 추석인 21일부터 시작되면서 호남 경선에서 승자가 누가 될 지 주목된다. 특히 호남은 전국 민주당 대의원·권리당원의 약 28%에 달하는 20만 표가 결집돼 있는 등 가장 중요한 승부처로 꼽히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이날 정오 기준으로 투표 이틀째를 맞은 광주·전남 투표율은 33.72%, 투표 첫날인 전북 투표율은 15.50%로 기대치보다 낮았다. 투표가 추석 연휴와 맞물린 탓으로 해석된다. 광주·전남 경선 결과는 오는 25일, 전북은 26일 각각 발표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지역 순회 경선과 1차 슈퍼워크에서 과반 승리를 이어간 이재명 경기지사도 ‘대세론’을 통해 호남에서도 과반을 굳혀 ‘본선’에 직행할지, ‘의외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 반전을 이뤄 낼 지가 호남 경선의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또한, 추미애·박용진·김두관 후보들도 첫날인 호남에서 얼마나 의미있는 득표율을 얻어 선전할 지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각 대선 주자 캠프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고, 호남 민심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판세는 혼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호남 민심도 신중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 민주당 경

선에서 전략적 투표 성향을 보여준 호남 민심이라는 점에서 대선 주자들은 호남에서 우위를 장담하면서도, 호남 특유의 전략적 선택 추이에 긴장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연휴 내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며 호남의 ‘전략적 투표’를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소방서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저는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자리까지 왔다”면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호남의 민심,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에 의해 합리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영진 캠프 상황실장은 주간브리핑에서 “대장동 의혹 등 많은 사건이 있었으나 이재명 후보가 여론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데세에는 변동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캠프 관계자는 또 “현재 판세 분석으로는 광주와 전북에서는 이 지사가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고, 전남은 이 전 대표의 텃밭인 만큼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열린 캠프’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광주 광산구) 의원은 “이번 경선에서도 호남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작동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재명 대세론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의외직 사퇴 승부수를 지렛대로 호남 민심이 들쭉이 있다’며 반전을 자신하는 모습이다. 전북 출신 정세균 전 총리의 경선 중도포기로, 정 전 총리 지지층도 상당부분 흡수했다는 판단이다. 이를 감안한 듯 이 전 대표는 22일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된 전북을 찾아 “역대 경선에서 호남은 신기루 같은 대세론에 현혹되지 않고 낱아빠진 고정관념을 단호히 거부했다”며 “이번 대선도 호남에 달려있다. 전국이 호남을 주목하고 있다. 호남이 결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결선 투표로 갈 수도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선거대책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재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현재 호남 경선의 판세는 전남은 확실한 우세를 보일 것이고, 광주와 전북에서는 백승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열린 캠프’ 총무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병훈(광주 동구남구) 의원은 “지역바닥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의외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이 전 대표의 결연한 의지와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본선에서 불안한 후보로는 위험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호남 경선에서 10%포인트 정도 이 전 대표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두 후보의 날선 경쟁에 경선 후유증을 우려하며 ‘원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인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무엇보다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에 대한 주머니가 많았다”면서 “시대가 변했음에도 여전히 반칙과 특권에 빠진 국민의힘에게는 절대 정권을 넘겨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후보가 되든 경선 후에는 똥똥 뭉쳐 민주당 4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머니가 많았다”면서 “더 겸손하면서도 더 낮은 자세로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여전히 ‘민생회복’에 대한 절박감도 많았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도 적잖았다”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김두관 의원 등도 연휴 기간 호남 일대를 돌며 표발을 다졌다. 이 가운데 선명성·개혁성을 앞세워 10% 넘는 득표율을 기록 중인 추 전 장관이 어느 정도 파괴력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추 전 장관 측 관계자는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상승하는 후보가 추미애”라며 “권리당원 투표율이 높은 만큼 15~20%까지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하와이행...유해 인수식 참석

유엔총회 연설 중전선언 제안  
BTS와 지속가능발전 역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의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하와이 호놀룰루로 떠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중전선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어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은 남북미 혹은 남북미 중의 중전선언 카드도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다시 부각하며 정상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여는 문”이라며 중전선언을 제안한 뒤 이번에는 선언 주체를 6·25 전쟁 당사국들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는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 회의(SDG

모멘트)’에 정상으로서 유일하게 참석해 “코로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회복과 재건을 이뤄야 한다”며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이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한 방탄소년단(BTS)도 나란히 참석했다.

백신 성과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엘버트 블라 회장을 만나 내년도 코로나 백신 추가 구매 및 조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고, 백신 원부자재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도 참석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의 정상회담에서는 한영 양국의 백신 교환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한영 정상회담 외에도 보루트 파호르 슬로베니아 대통령, 응우옌 쉰언 북 베트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각각 진행했다. 베트남에는 내달 중 100만회 분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호놀룰루로 이동하는 문 대통령은 22일에 개최되는 한국전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 참석한다. 해외에서 열리는 유해 인수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뒤 23일 귀국한다. /연합뉴스

## 이재명 27.8%·윤석열 18.8%·홍준표 14.8%·이낙연 12.0%

### 한국리서치 대선 적합도 조사

추석 연휴를 맞아 같은 날 발표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KBS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를 차지한 반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를 기록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18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지사가 27.8%로 윤 전 총장(18.8%)을 9%포인트 격차로 앞섰다. 이어 홍준표 의원(14.8%), 이낙연 전 대표(12.0%), 유승민 전 의원(2.7%), 안철수 대표(2.2%), 추미애 전 장관(2.1%) 순이었다.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의 경우 이재명 지사 37.0%, 이낙연 전 대표 24.2%로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는 홍준표 의원 30.2%, 윤석열 전 총장 21.8%로, 홍 후보가 윤 후보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 28.8%, 이 지사 23.6%를 각각 받았다. 해당 기관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이 지사에 앞선 것은 4주 만이다. 이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15.4%),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13.7%), 유승민 전 의원(2.9%),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9%),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2.4%), 정의당 심상정 의원(2.1%), 최재형 전 감사원장(1.6%) 순이었다.

법진보권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28.6%로 선두를 지닌 가운데 이 전 대표가 22.6%로 추격세를 이어갔다. 그 외에 추 전 장관(5.8%), 민주당 박용진 의원(5.2%), 심 의원(3.5%) 순이었다.

범보수권 조사에서는 홍 의원이 30.0%를 기록, 윤 전 총장(29.5%)과 조박민 접전을 벌였다. 이어 유 전 의원(9.8%), 안 대표(4.1%),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2.8%) 순이었다.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 중 하나로 조사 방식의 차이가 꼽힌다. KBS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KSOI 조사는 무선 ARS로 진행됐다. 그동안 ARS 방식 조사는 윤 전 총장이, 전화면접 방식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우세한 흐름이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수 지지층임을 밝히기 꺼려하는 이른바 ‘사이 보수’가 면접관이 직접 지지 후보를 묻는 전화면접에서 보다 응답에 소극적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